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기도하는 사람들



손가락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저께는
온통 깜깜한 밤하늘
오늘은 별이 총총한 밤하늘

손가락이 세 개든 네 개든
손가락 쫙 펴고,
하늘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 분들 은혜로
지금
우리가 있을까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싸이말루이 따쉬의 특징적인 암각화다. 큰 반달 모자 같은 것을 머리에 쓰고, 손에 북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샤먼일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손가락이 3개나 4개다. 보통사람과 다른, 특별한 신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다.

샤먼의 옆에 있는, 두 팔을 위로 들어 올린 사람은 샤먼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듯하다. 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반원형의 그림은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북을 들고 기도하는 샤먼들의 머리 위에 있는 반달 모양은, 칠흑 같이 어두운 밤하늘, 또는 기도 성취를 위해, 한 점의 빈틈도 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깊은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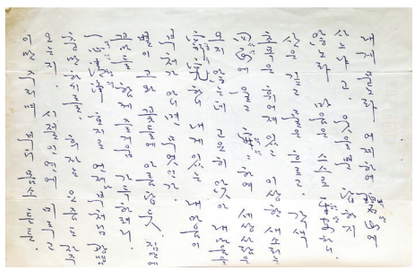
고대인들의 삶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어쩌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도하는 일은 매우 절실한 일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형식과 모양은 다를지라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요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상한 감기는 모든 사람들을 고통의 늪에 빠지게 하고 있다. 어서 빨리 원인을 찾아내고 처방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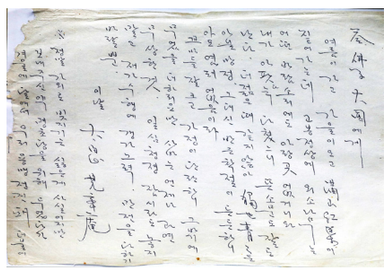
먼 옛날 옛적에 밤하늘을 바라보며 정성으로 기도했을 그분들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 분들이 무척 가깝고 고맙게 느껴진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⑦ 일타 스님 3

산중 선지식의 마음





〈서신 1〉
내게 묻노라 어찌하여 碧山(벽산)에 사느냐고,
웃을 뿐 답하지 않노라
마음은 스스로 平安(평안)하니 산은 깊고 물은 흐르고
각색 초목은 휘어져 있고 이상한 새소리는 사방에 울고
적적하여 세상 사람은 오지 않는데
고요히 앉아 내 마음을 궁구하니
내게 있는 내 마음이 부처가 아니면 무엇인가
별이 고와 꽃들이 아름답듯 집안에 꼬마들 함께 즐거움 가득하려니
일심청정 호지로 언제나 부처님 광명이 충만하기를
희자는 요즘도 자주 오는지
시절 인연에 미루고 이만 줄이며 부디 몸소 튼튼.

태백산 도솔암에서 수행 중이실 때 쓰신 글을 보내셨다. 희자 스님은 진주 응석사 총무스님으로 자주 함께 뵈었던 스님이다.

문장 한 줄 한 줄에서 산중 선지식의 마음을 볼 수 있었던 편지다. 경전이나 일반 책의 문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생생한 문장이다. 많은 서신이 있었지만 이 서신은 유독 기억에 남는다. 한 줄 한 줄 서신을 읽으며 스님의 깊은 마음에 다가가려 애썼던 기억이 난다.

〈서신 2〉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滿山紅葉(만산홍엽)이 짙어가는데 고봉정상에 외 소나무는 어떤 바람소리에도 아랑곳 없거니와 내가 아팠다느니 다쳤다느니 뜬소문이 잘도 난다. 더 젊을 때 같지는 않아도 독야청청은 아닐망정 그 대신 반근착절이 든든하니 아모 염려 없음이라.

꼬마들 잘 크고 가정이 단란하니 그 밖에 무엇을 더 하리요만 사바는 언제나 과연 무상한 것. 일심청정 잠시라도 놓지 말고 재가 수행에 갱가노력 만전을 다하기 바랄 뿐. 태백산 도솔암에서

※가외로 빚지기는 정말 싫은 게 사실이지만 보내주신 약 명초당을 위해 두었다가 겨울에 달여서 우리 용맹정진 때 더불어 공양하겠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의논하여 약을 한 재 지어 보내드린 후 답장으로 온 서신이다. 아버지와 친분이 두터우셨던 스님은 부산 대각사에 법문하러 오실 때면 나를 불러 법문을 듣게 했다. 그때는 내가 불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였다. 그냥 뒷전에 앉아 있는 게 다였다. 어떻게들 알았는지 절 마당은 대중으로 가득차서 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는다는 게 신기했다. 그렇게 일타 스님과 인연이 시작됐다.

얼마 후 대각사 불교청년회에 가입했고 1967년 11월 해인사 수련회에 참가했을 때 다시 스님을 뵈었다. 그때부터 스님을 자주 뵙게 되었고, 인연은 깊어졌다.

1968년 봄에 범어사 보살계 법문하러 오셨을 때에도 보살계가 뭔지도 모르는 내게 계(戒)를 주셨고 행사가 있을 때면 꼭 알려 주셨다. 내가 스님을 깊게 따르다보니 문중 스님들도 자연스레 큰스님 유발상좌로 대해주셨다. 스님이 안 계신 지금도 행사 때마다 문중 스님들을 뵈면 친정에 온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스님이 더욱 그립다.



일타 스님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환경보호를 위한 첫-걸음!
지구를 생각하는 방송 BTN과 함께



STEP 1. 일회용품 NO!
개인 텀블러와 손수건을 사용해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STEP 2. 플라스틱 · 비닐 사용 NO!
시장 갈 땐 장바구니, 플라스틱 제품 대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기

STEP 3. 음식물 쓰레기는 최소화!
반찬은 먹을 만큼, 세제사용은 최소화로 BTN과 함께 환경보호에 동참하기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B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케이블문의:02)3270-3300